

# 후속 보도 자료

---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인 성명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붓물을 틔시다!"
담당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9120-1617, equalact2017@gmail.com
발송일	2022년 4월 22일(금)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12일차입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인(2022.4.22 오전 9시 기준)은 하루 온라인 서명(4.21~4.22)을 통해 모든 시민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3. 이미 지난 2021년, 509명의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7년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2020년)을 환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민주주의와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해법임을 제시하고, 페미니즘 정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 선언 (2021년 5월 10일자)  
<https://equalityact.kr/2021-0508/>
4.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고,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공약으로 등장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은 여전히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사회적 용인 속에서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며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온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다시금 국회가 즉각적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국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6.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 기자회견 진행

###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발표 기자회견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붓물을 틔시다!”

■ 일시 : 2022년 4월 22일(금) 낮 12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 ■ 참여/발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김성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 김미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부교수)
-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이상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명예교수)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성명 낭독 :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 [주요 발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후 가장 공을 들이고 절실하게 제정하기를 촉구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2006년과 2020년,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진정을 담아 촉구했던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의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와 무책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왜 있는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말로 혐오와 차별, 갈등이 우리사회를 좀 먹는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걸음을 내딛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정의 첫 걸음이 아니라 마지막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에게 적대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사회가 모든 소수자의 생존과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미류 님과 이종걸 님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투쟁이 빨리 중단될 수 있게끔 4월 내에, 15년에 걸쳐서 제정하지 못했던 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5년입니다. 교통정체를 생각해 보면 답답합니다.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지는 겁니다. 길이 막혀서 지금 움직일 수 없었던 시간이 15년입니다. 그 15년을 뚫고 나갑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함께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 김성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 “이 자리는 지난 30년 한국사회가 성취해 온 민주화의 과정을 완결하는 자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모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통합사회, 민주사회, 평등사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글로벌 국가가 된 지금,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건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한국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꼭 수행해야만 하는 책무이고 과제입니다.”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사회통합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사회적 소속감과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회개혁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정치 엘리트들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중심의 정치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땅 따먹기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되고,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4월이냐. 진보를 표방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엘리트들의 남성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안에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말까지 전력을 다해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희망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 제가 동아시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 가서 국제회의를 하면 한국의 사회민주화 활력이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해야 한다니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촛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촛불 정권이 한 가지도 안 합니다. 416 세월호 진상규명도 안 하고, 차별금지법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와 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0일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 안 하고 가는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 87년, 그때의 민주주의가 페미니즘을 배웠다면 어땠을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상식처럼 여겨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단식까지 하는, 비극인지 희극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국회 안에서는 검찰개혁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검찰개혁에서 개혁이 필요한 출발선도 인권이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더욱 쉽고, 범죄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 가르고 싸우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대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촛불이 지나고 나서도 한국의 정치가, 민주주의가 페미니즘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분들은 사실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페미니즘을 새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오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이후에 함께 넘어서야 할, 이어서 다시 써야 할 역사의 방향을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거대양당이 서로 잘못했다고 싸움질 하지만, 아무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도 우리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니다. 5년 동안 심화된 불평등과 더욱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야 했던 소수자들의 일상과 삶에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촛불을 넘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페미니즘을 새기는 방법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봄을 맞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있는 봄이 새 시대의 봄일 거라고 믿습니니다.“

## ■ 1,043인 성명 전문

### [성명]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붓물을 틻시다!”

평등은 헌법이 명시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니다. 어떤 사람도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등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 원칙은 헌법의 기초입니니다. 그러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터와 학교, 일상과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놓여 있습니다. 심화하는 물질적 빈곤과 정치적 배제, 문화적 무시는 사회적 존재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의 박탈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삶 자체를 위협습니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할 정치인에 의해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불평등과 갈등, 분열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을 향한 혐오는 사회적 용인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면서 공동체를 위협습니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며 국회에 즉각적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습니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언제나 페미니스트 연구와 활동의 핵심 목표였습니니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은 선언과 투쟁의 결과로 쟁취된 것입니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권리 쟁취의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왔습니니다. 페미니즘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모든 구성원들이 연대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존의 삶을 지향습니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여성학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것도, 2021년 5월 8일 <차별금지법과 전진하는 페미니즘>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지향과 열망에서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오늘날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는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뒤에 숨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고통이 깊어지는 것을 방관해 왔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이 두 거대 정당 모두 혐오를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선거공약이 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하되며, 성소수자와 이주민이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는 현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합을 향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정신은 정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모두를 위한 민주, 모두를 위한 평등의 염원을 보편적 사회 가치로 정착시키는 이 중차대한 역사의 임무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 국회에서 꼭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돌보는 민주-평등 공동체로 새롭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22일

####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개인) 총 1043명

Raymond Hah, 가람(평화페미니즘 연구소/전쟁없는세상), 감자(지리산필름), 강경미(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나라, 강남식, 강다운(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강대곤, 강득희((사)삶의예술문화원 전문위원), 강라현(개인연구자), 강미영(청주YWCA아이쿱생협), 강민형(Boston University), 강민형(연세대 박사후연구원), 강석금, 강선미(하랑센터트레이닝센터), 강소영, 강수정(상담사그룹 서로오롯), 강슬기(의정부EXODUS), 강예린(서울대 건축학과), 강유기람(문화기획집단 영화아날자), 강유민(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은교(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이수(상지대), 강인화(서울대 국사학과), 강정숙(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강지연(가배울), 강지희(한신대),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회), 고가희, 고경옥(미술평론가), 고금숙(알맹), 고명숙(이주와 가치), 고명희,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고병진(이화여대 여성학과), 고애덕, 고윤경(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고은준(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주현,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미혜(새길공동체), 공혜영(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광민주(상담심리사), 광선숙(서울동북여성민우회), 광영신, 광은정(육일봉), 광진아, 구기연, 구숙경, 구자은(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구지운(이화여대 여성학과), 국미애, 국혜조(사람마음), 권근영(연극인),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권다인(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명복,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평등공작소 나우), 권용선(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권은경, 권은채, 권정은(시민건강연구소), 권진승(연세대), 권혁범(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권혁선, 권혜원, 권혜진(이화여대 민주동우회), 권희담(성평등전주), 권효은(이화여대 여성학과), 그린/김주희(한국다양성연구소), 길혜린(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가빈(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김가영(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김건형(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경선(기독교민회), 김경선(하계심리상담연구소), 김경연(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김경희, 김경희(중앙대), 김관옥(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김광희(이화여대 민주동우회), 김기태(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김김혜영(천도교 아산교구), 김나연(숙명여대 조형예술학과), 김나혜(전교조 강원지부 유천초분회), 김남숙(대전평화여성회), 김남영(시민), 김남이(한림대 사회학과), 김다솔(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대숙, 김도은, 김도형(해카테

여행), 김도혜(덕성여대), 김도희(다다름), 김도희(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동석(신사책방),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김동진(페페연구소), 김두리(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두철(서울용문고등학교), 김탁일, 김란영(고려대), 김린(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명주, 김명진, 김문정(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서촌옥상화가), 김미란(성공회대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김미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미순, 김미연(여성문화이론연구소), 김미주(울산과학교대 사회복지학과), 김민솔(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민정(강원대), 김민정(성소수자부모모임), 김민지, 김보라(이화여대), 김보명(이화여대), 김복희(울산사회복지사협회), 김봉률(동국대), 김상애(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김상희(심리상담센터 사이공간),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김서하(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생활상담실), 김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터), 김선명(한국독립영화협회), 김선영, 김선혜(이화여대), 김성(서울대), 김성곤(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김성순(대한성공회 김제교회), 김성애, 김성애(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김성은, 김소담(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다함), 김소영(감독), 김소윤(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김솔(부산대), 김수미, 김수산나(기장 여성세움센터), 김수아(서울대),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전남대 사범대학), 김수진(책), 김수형(강원도교육청 강릉여자고등학교),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김승섭(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시은(고려대 로스쿨), 김신명숙(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김신현경(문화기획집단 영화야놀자), 김신효정(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애란, 김애령(이화여대),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김엘리(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김엘림(평화페미니즘 연구소), 김연순(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김영(미루픽쳐스/영화 프로듀서), 김영(부산대 사회학과), 김영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영란(숙명여대), 김영미,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김영미(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복(전교조 강원지부), 김영선(성공회대), 김영순, 김영우(충남대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BIGWAVE), 김영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영화, 김영희(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김예란(광운대), 김예원, 김윤희(평화페미니즘 연구소), 김우영(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우주, 김우희(Harvard University, 차별에 맞선 별의별+ 커뮤니티), 김유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유하(서울대 사회학과), 김유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윤, 김윤일(변화의월담), 김은정(시라큐스대), 김은주(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김이승현(제주여민회), 김장연호((사)대한여성문화발전소 아이공), 김재호(장수민중의집 우리동네), 김전수(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대(천주교 예수회), 김정란(인천여성가족재단), 김정래(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숙,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김정원(연세대 국제처/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김정임(대전여민회), 김정주(제주대), 김정현(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김정희(여성학 연구자/활동가), 김정희원(에리조나주립대), 김종민, 김종빈(가톨릭대), 김종철, 김주아(아주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주원(청설모), 김주희(덕성여대), 김준희, 김중미, 김지강(사람마음), 김지민(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지선(전교조 여성위원회), 김지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지수, 김지연(광주여성센터), 김지연(뜻밖의상담소), 김지오(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지은(상담사그룹 서로오롯), 김지은(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지화(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혜(강릉원주대), 김지혜(서울시립대), 김지혜(한신대 영미문화학과), 김지혜(한신대 영미문화학과), 김지환(우리신학연구소 가톨릭평론), 김지효, 김진열, 김진영(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이, 김채희(광주여성영화제), 김최건희(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영광제일교회), 김태원, 김태희, 김하정(상담사그룹 서로오롯), 김해서(여바인 캘리포니아대학 인류학), 김혜원(어린이책작가연대), 김향자(충북여성정책포럼), 김현(연세대 문우편집위원회), 김현경(가족구성권연구소), 김현미(연세대), 김현석(정의당 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김현선(목포여성의전화), 김현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현정(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김현주(인천여성노동자회), 김현철(토론토대),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김혜령(이화여대), 김혜린(서강대 여성학과 석사), 김혜숙, 김혜숙(부산여성사회교육원), 김혜순(초록상상), 김혜정(이화여대 여성학과), 김혜진(앤의서재), 김호두(트랜스세계의동자들), 김호영(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김홍윤(중앙대 뿌리), 김화순(화가), 김효성, 김효은, 김효주(심리상담센터 당신의 마음거울), 김효진(에스에프에프 sf x f), 김희경(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김희옥(또하나의 문화), 김희진, 깃, 나랑도야(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나윤경, 나희덕(여성환경연대), 난설현(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남궁미(서강대 인권센터), 남궁희수(경남이주민센터), 남보라(명지전문대 상담원), 남승현(이화여대 여성학과), 남은우(이화여대), 노고운(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노귀남(참여와평화), 노서영(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노수미(막달레나공동체), 노원민(한국외대 외행성), 노주희(젠더교육플랫폼효재), 노지은(한국여성재단), 다함(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달연(직접행동DxE), 담이, 덩야팽(팔레스타인평화연대), 라헤민(여성환경연대), 루인(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류다정(한국예술종합학교), 류부영(인천여성회), 류유선(대전세종연구원), 류인숙(제천YWCA), 류재준(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류진희(한국여성인권진흥원), 리조(변화의월담),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준희(프리랜서 예

술가), 무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문경란(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문경연(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문경은(젠더교  
 육센터-HU), 문경희(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문덕희 , 문미란(소비자시민모임),  
 문미영(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문보미(이화여대 여성학과), 문아영(한양대 연극영화학과), 문옥희(사단법인 행복누리),  
 문유진(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은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현아(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문현주(움여성  
 한의원), 문혜정(소비자기후행동) , 민가령(풀뿌리여성마을숲/회원), 민경자, 민서연(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민수빈(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민지원(한국과학기술원), 민희(플랫폼C), 박가인(미술작가), 박경재(중앙대 사회복지  
 학과), 박광수(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광훈, 박광흠(전교조 경기지부), 박귀천(이화여대), 박내현(풀바람), 박다위, 박덕  
 제, 박도담(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박도윤(이화여대 여성학과), 박명수(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  
 문영(에스에프에프 sf x f), 박미경(강원영동대학교인권교육연구회), 박미선, 박미선(한신대), 박미영(천안지역사회교육협  
 의회), 박상은, 박서새슴(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박서진, 박서희, 박석룡, 박선영, 박선의, 박세진(연세대),  
 박소영(서울여대), 박수려(이화여대 포스트휴먼융합인문학협동과정), 박수민(연세대 사회학과), 박수한(더불어민주당 서  
 울시당), 박신경, 박신영(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박영민(중앙대 사회학과),  
 박예주(서강대 일반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박은진(성평등 교육 프리랜서 강사), 박이은실(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탕  
 자/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인경(이화여대 민주동우회), 박정원(여우책방),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박주연(연세대 사  
 회학과 BK21 교육연구단), 박주영, 박주희(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준호(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  
 워크), 박준희(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지나, 박지수, 박지영(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진숙, 박진희, 박찬  
 옥(노동장애인아학), 박하늘(연극배우), 박해숙(부산여성사회교육원), 박현서(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박현이(젠더교육  
 플랫폼효재), 박혜경(충북여성재단), 박혜숙, 박혜영(인하대 교수), 박혜정 , 박효범, 방금실(서강대 사학과), 방혜영(성  
 폭력난대연극인행동), 배미라, 배미란(울산대 법학과), 배상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배소영(충북 생활정치여성연대), 배  
 은경(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배재훈(라이더유니온), 배우연(서강대), 배진경(성남여성외전화), 배채연(Leiden  
 University,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배화정(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백미륵(이화여대 여성학과), 백소요(책N),  
 백영경(제주대 사회학과), 백원담(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백재희, 백정미(모자란다), 백조연(중앙대 사회학과), 백  
 흥선(순천남산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변재단(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부서운, 부영, 새라(팔레스타인평화연대), 새시비  
 비(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서기영(제나힐링심리상담센터), 서명선(충북여성정책포럼 인권복지분과), 서보경(연세대 문화  
 인류학과) , 서선영(충북대 사회학과), 서아현(성공회대 사회학과), 서연화(여성환경연대), 서원(나다온심리상담공간),  
 서정혜(신라대), 서혜연(공주책읽는여성행동), 서희(알파오메가), 선혜연, 성운애(한국해양대 인권센터), 성경숙(사회복  
 지연구소 물결), 세월(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소라미(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소영(대전여  
 민회), 손서은, 손선희(계명대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손의정(이화여대), 손지은(전교조), 손희정(경희대 연구교수), 손희  
 제(심리상담소 마음의시간), 송관희(한국여성의전화), 송명은, 송민이(연세대 사회학과), 송수빈(서울시립대), 송수연(아  
 동청소년작가연대), 송은희(여세연), 송주연(루트심리상담소) , 송지영(강원대) , 송현민(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 송  
 혜림(연세대),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신나리(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신동주(에브리마인드), 신동훈, 신민자, 신민정  
 (국제엠베스티 한국지부), 신상이(서울여성노동자회), 신성미(광운상담연구소), 신성주, 신소현(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신수미(프리랜서), 신수연, 신예진(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신윤경(예비사회적 협동조합 인다라 이사), 신윤정(서울대  
 교육학과) , 신은희(벨류가든), 신정미(나를아는시간/심리치료사), 신정수, 신주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신지원(전남대  
 사회학과), 신필균, 신현경(작가), 신현아, 신현옥(한국여성경제진흥원), 신혜선(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심보미(성남문  
 화재단), 심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nalWaters31), 심우진(도쿄외국어대 대학원), 심은숙(라파카족세  
 움연구소) , 심진규(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심현화, 심혜경(한신대), 심혜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안예슬, 안유선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안이희옥(소설가), 안재욱(놀이친구), 안정배, 안정희(동북여성민우회), 안지희(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안혜경 , 안희제(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양세진(이화여대 여성학과), 양 해우(경희대 비교문  
 화연구소), 양경연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 양경인, 양나라(미대의외침) , 양민석(이화여대), 양수복(비혼퀴어여성함께  
 살기 반달), 양인자(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양차미(University of Illinois, Georgia Tech), 양창아(한국비정규교수노  
 동조합 부산대분회), 양해경(사람과평화대표), 양희주(제주여성회), 어경희(콜로라도대 불데),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사회  
 복지학부), 여름(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여수진(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순주 ,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  
 성회), 연혜원(투명가방끈), 연효숙 , 영실(전교조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영철(피스모모), 오경숙(충북여성정책포럼), 오  
 김숙이(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오미영, 오선희(범무법인 혜명), 오수경(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오승석(한국기술교육  
 대), 오영아(심리상담센터 사이공간), 오유미(한국성폭력위기센터), 오은숙, 오은정(서울대 인류학과 BK), 오은혜(이화

여대 여성학과), 오종희, 오지향(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오창록(출판노동유니온), 오한숙희(여성학자/방송인), 오현선(공간엘리사벳), 오현정(뜻밖의 상담소), 오현주(한국음악협회), 오혜민(이화여대/한국예술종합학교), 오혜진, 요한(제3시대), 우귀옥, 우복남(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우주현(중앙대), 우춘희(매사추세츠), 원다운, 원동일(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상임대표), 웬티현, 유나미(소비자기후행동), 유다솜, 유보람, 유서연, 유숙열(이프박스 대표), 유승우(서울대 인류학과), 유연수, 유연실(목포대 사학과), 유영경(충북여성정책포럼), 유영선(충북여성정책포럼), 유영우, 유정미, 유정우(연세대), 유정임(인천여성노동자회), 유지영(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유지영(충북여성정책포럼), 유초원(이화여대 사회학과), 유하원(사단법인 부천여성의전화), 유현미(서울대 사회학과), 유화정(가족구성권연구소), 윤금이(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윤기쁨(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윤남식(인제대학교 미래복지연구소), 윤명순(성소수자 부모모임), 윤미경, 윤상희(숲피앗), 윤순자(성남여성의전화), 윤엘리스(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윤연숙, 윤영수, 윤영호(해봄), 윤예영(충북대 국문과), 윤운영(우석대 상담심리학과), 윤원혜(제주여자고등학교 교사/연구자/연극활동가), 윤정희, 윤혜민(공주책읽는여성행동), 윤혜연, 윤효정(다다름), 이간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이간정, 이경미, 이경아(성소수자부모모임),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이계정, 이광욱(독립연구자), 이기숙, 이나영(중앙대/정의기억연대), 이난경(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여.세.연), 이난희, 이내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다솔, 이다은(싱가포르국립대 비교아시아학), 이대옥(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이덕희(다다름), 이덕희(명상센터 공감 대표), 이동옥(서강대 여성학연계전공), 이동은, 이루카(에스에프에프 sf x f), 이리예(이화여대 여성학과), 이명선, 이명숙(고정희기념사업회), 이명화(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훈, 이문우(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이미경,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애(한신대 사회학과), 이미영(우리신학연구소), 이미현(현심리상담연구소), 이민주(한국여성민우회), 이민지(서강대 여성학과), 이민지(서울노동권익센터), 이산(성평등작업실 이로), 이상덕(우송대 특임교수), 이상미(젠더교육연구소 젠더너머/공주책읽는여성행동), 이상순, 이상윤(고려대 법학연구원), 이상현, 이상현(정의당 Just Feminist), 이상화(이화대 인문대 명예교수), 이상화(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 이새별(충북대 심리학과), 이서희(공주책읽는여성행동), 이선영(이화여고 교사), 이선옥(한국여성문학학회), 이선이, 이성원(상담사그룹 서로로), 이성은, 이세경(전교조), 이세연, 이소리(여성시민문화연구소), 이소림(펜실베이니아대), 이소영, 이소윤(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소진(연세대 사회학과), 이소훈(경북대 사회학과), 이솔, 이송희((전)신라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송희(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이수연, 이수연(경남대 연구교수), 이수연(성가소비너회), 이수정(덕성여대 문화인류학), 이수진(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이숙진(여성노동포럼), 이순희(충북여성정책포럼), 이슬기(평화페미니즘 연구소), 이승현, 이승현, 이승현(연세대 법학연구원), 이승호(서울대 교육학과), 이승훈, 이아름(서울대 미학과), 이아름(이화여대), 이안나(젠더&섹슈얼리티 연구교육집단), 이양희(대구여성의전화), 이영룡, 이영미(한신대), 이영분(기독교여민회), 이영아(나는봄싹터), 이영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영희, 이영희(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영희(일과희망노동사사무소), 이예림(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이옥분(대전여민회), 이웅식(원불교), 이원숙, 이유진, 이유진(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이우혁(부산대), 이윤경(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이윤상(전)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은선, 이은성(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이은숙, 이은심(변호사), 이은아(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은영(공주책읽는여성행동), 이은자(서울동북여성민우회), 이은정(서울대 인류학과), 이은정(한신대), 이은주(대전여민회), 이은주(또하나의문화), 이은진(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은하(책밥 협동조합), 이은희, 이웅철(덕성여대 문화인류학), 이인수(충북여성정책포럼), 이임연(진천여성취업지원센터), 이정규(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이정남(갈등무도서관), 이정미(성가소비너회), 이정숙, 이정원, 이정자, 이정주, 이정희(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주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주원, 이주원(부산대 여성학), 이주원(캘리포니아주립대-어바인 인류학과), 이주원(한국기술교육대 상담진로개발센터),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지수(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이지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지영(이화여대 철학과), 이지운(아르스 프락시아), 이지하, 이지희(수원여성의전화), 이진선, 이진실(서울과학기술대), 이진아, 이진아(제주여민회), 이진희, 이차경, 이채민, 이채운(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이춘아(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대전여성), 이태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하영(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터), 이해경(서울동북여성민우회), 이해리, 이해주, 이해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해찬(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현미(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이현경(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이현서(아주대), 이현숙(여평외교포럼), 이현애(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 이현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이현정(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현정(서울대), 이현정(여성주의 세미나 강폐두목), 이현주, 이혜령(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혜민(고려대), 이혜영(연구활동가), 이혜정(반성매대인권행동 이름), 이혜진(이주여성인권포럼), 이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호영(여성학 연구자), 이휘영, 이희영(대구대 사회학과), 인은미(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임국영, 임두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정책연구팀), 임보라(섬돌향린교회), 임사랑(소비자기후행동), 임세연

(이화여대 여성학과), 임수아(멸종반란/가톨릭), 임슬아, 임연신(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임옥선(젠더너머연구소 젠더너머), 임우경(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임유경(하버드대 인류학과), 임유진(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임윤경(미술가), 임윤옥, 임은희, 임정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임지영(소람상담소), 임춘성, 임태미(평화민주인권교육 인), 임태욱, 임효정(한국도시연구소), 자이(팔레스타인평화연대), 자인(팔레스타인평화연대),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미숙, 장수정(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장수지(이화여대 사학과), 장수희(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장승기(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장영현(캐나다 희망21), 장영혜(다다름),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장우광(해남교육희망연대), 장우정(행동하는페미니스트), 장윤경(갈등경영연구소 소장), 장윤영(막달레나공동체), 장윤원, 장은애(국민대 대학원), 장이섯(소비자기후행동),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장정현(연세대 교육학과), 장지현, 장진우(녹색당), 장필화, 장현자, 장현정(세은심리상담연구소), 장혜주(이화여대 민주동우회), 장희진, 재원, 전명순(성남여성성전화), 전미미(김해여성회), 전민정, 전민지, 전방욱, 전병영, 전성원, 전원근(제주대 사회학과), 전유나(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전재원(서울대), 전지은(정의당원), 전혜린(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전혜은(서울대 여성학), 전희경(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전희경(에틀란타세사모), 전희정, 짓종향, 정가영(UC Davis, Asian American Studies), 정경화, 정경화(해카테여행), 정고은(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정근와(상담사그룹 서로아웃), 정다희(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정미경, 정민우(로울라 시카고대 사회학과), 정민주(이화여대), 정보라(민주노동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정상혁(사단법인 올 변호사), 정세한, 정서진(국방부 육군), 정성조(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정소영, 정수연(야호문화나눔센터 문화지소 해남), 정승아(서강대 신학대학원), 정승희, 정신희(이화여대 여성학과), 정애경(경인교육대 교육학과), 정연(이화여대 여성학과), 정연보(성공회대), 정예나, 정예원(청년한의사회), 정용림(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땅동), 정은경(전교조 여성위원회), 정은영(미술작가), 정은주, 정종민(전남대 글로벌디어스포라연구소), 정지연(고려대 교양교육원), 정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정진경(또하나의 문화), 정진이(전교조 전남지부), 정현희(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인(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혜진(기독여민회), 정혜진(성균관대), 정희진(공동육아아공동체교육), 정효주(이화여대/소수자인권위원회), 정희성(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정희중, 제인, 제제, 조경희, 조나단(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조미수, 조민아(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조민재(이화여대), 조서연(평화페미니즘 연구소), 조선희, 조소연(중앙대 사회학과), 조소연(한국성폭력위기센터), 조수미(명지대), 조수민(변화의월담), 조연희, 조영실(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영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영지(서강대 사학과), 조옥라,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조운산(서울시립은평의마을), 조윤진(충남여성가족연구원), 조은, 조은, 조은비(독립 큐레이터), 조은숙(제주여민회), 조은주(부산여성사회교육원), 조이수현(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조이한(프리랜서 작가), 조진선(성기소비너회), 조하영(사회학과 대학원), 조한나(시스피아), 조현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조형(이화여대 명예교수), 조혜림(성소수자부모모임), 조혜민(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조혜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혜정(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주하(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줌마네(이숙경, 지병수(부천무지개유니온),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지승경, 지은숙(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지현(페미니즘 교육연구소 연지원), 진냥(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진명숙(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진보성(방송대), 진은선(장애여성공감), 진형민(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차주은(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차혜진, 채은순(신나는여성자갈자갈), 채현정(덕성여대 문화인류학전공), 천명자, 천유관, 천주희(문화사회연구소), 최가영(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최가은(한양대), 최건아(청주대 국어교육과), 최고은, 최공숙(세종여성), 최기섭, 최나현(부산대 사회학과), 최명순(여성인권티움), 최미라, 최민(한국노동안전재건연구원), 최별(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최서연(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최서영(연세대 정치학과), 최선아, 최성자(대전평화여성회 평화교육센터), 최소연, 최소영(정의당), 최수연(세인트 메리 대학 여성학과), 최수진(공동체 도꼬마리), 최시영(충북녹색당 증평당원), 최시현(연세대 국학연구원), 최연수(이화여대 여성학과), 최영민(대전여성단체연합), 최영애((전)국가인권회 위원장), 최예훈(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최우혁(아카데미 할미), 최유리(서울대 교육학과), 최유미(수유너머104),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레이저비드 제주), 최윤희(청강문화산업대학교 외래교수/심리상담소 인 대표), 최윤희(한국임상심리학회), 최은경(경북대 의과대학),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최은주(하자센터), 최은혜(연구자대피소 줌두막), 최인선(한울심리상담센터), 최장미(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최장원, 최정운(비커밍 심리상담센터), 최정진, 최종예(충북여성정책포럼), 최지원, 최창성, 최채연(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하니(Rutgers University 사회학과), 최한솔(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최현숙, 최형정(충북대 심리학과), 최형미, 크리스(알파오메가), 태희원, 풀쩍(민는페미), 하은빈, 하지선(인권복지연구소 연), 하해성(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한금숙(구암도서관 순화서서), 한서승희(젠더문화연구소), 한설아(Western Carolina University, USA), 한세리(소비자기후행동), 한수정, 한승희(한국NVC센터), 한에니(한국상담심리학회), 한예숙(성소수자부모모임),

한윤희(정의당광주시당), 한주희(UCLA 젠더학과), 한준희(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한창수, 한재윤(교육플랫폼 이탈), 한혁규(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한희선, 한희정(국민대), 함세정, 함유경(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허라금((전)이화여대), 허성우((전)성공회대 교수), 허성원(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허애령, 허영란,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윤(부경대), 허윤옥(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허주영(한국외대), 허현진, 허혜영(부산대 여성학), 현대일(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상식(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운영회원), 호정화(아주대), 홍 빛여울(배고픈 페미니즘), 홍경옥(성소수자부모모임), 홍경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홍기옥, 홍기훈(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홍보람(여성문화이론연구소), 홍석경, 홍소희(젠더플러스),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영화, 홍예원(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홍예진, 홍윤기(상당사), 홍정선(성소수자부모모임), 홍찬숙(한국여성연구소), 홍태희(조선대), 홍한솔(블꽃페미액션), 홍혜선(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홍혜은(서울대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황경선, 황금명륜(젠더교육플랫폼효재 원장), 황선애(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황수연(서울대 환경대학원), 황수옥(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황숙자(전여농 제주도연합 표선지회),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영선(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황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황은정(나다 정책연구소), 황정미, 황정미(서울대 여성연구소), 황정화(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황지성(서울대), 황혜정(한국다양성연구소), 황희아(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 희원(이화여대 여성학과), 희음, 희진(전교조 여성위원회) | 총 1,043명